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의 실무경험*

Work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as 119 Paramedics

정 희 영** · 이 해 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간호사 배치는 1991년 12월 31일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터이며(법제처, 2009), 1996년 135명에서 2007년 현재 163명의 정규간호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9).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의 주요업무는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대상자를 이송하기 직전까지 응급의료처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는 전문의료인력으로 환자 이송 시 응급처치 수행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가 배치된 경우 응급처치 수행률은 19.1%로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응급처치 수행률=11.7%)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영임, 2000), 신속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해 구급대원 내 간호사의 배치는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환경과 달리 응급의료서비스 환경은 크고 작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협적인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게 되기도 하고, 응

급처치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호소한다(Ploeg & Kleber, 2003).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들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짐작된다.

구급활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이강오와 정지연, 2002; 최덕기, 2004; Jonsson et al., 2003), 연구 대상자의 59.4%가 구급활동 중 상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26.7%가 환자의 음주와 폭언으로 이송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최덕기, 2004), 업무와 관련하여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의 구급출동해야 하는 것과 근무시간 내내 긴장하고 출동에 대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오와 정지연, 2002). 또한 61.6%가 업무와 관련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였으며(Jonsson et al., 2003), 10~22%에서 임상적 우울과 불안 증상을 나타내었으며(Bennett et al., 2004), 부수적인 서류업무, 예방업무, 재정관리, 구급차 및 구급장비의 관리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오진환과 이인수, 2007). 오진환과 이인수(2007)가 실시한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haejung@pusan.ac.kr)

접수일: 2010. 5. 31 심사회의일: 2010. 6. 16 게재확정일: 2010. 10. 16

대상의 질적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에서 벗어나길 원하였으며,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대상자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였으며, 재충전의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여 적극적인 신체적, 정신적 관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를 구조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구급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군다나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는 구급조직 내에서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가장 풍부하게 지닌 전문인력 중의 하나로 구급활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구급활동자 대상자의 연구들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구급대원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또한 객관적 측정이나 관찰에 의한 양적연구이기 때문에(정유나, 2007; 김용진, 2006; 박경효, 2002) 이들의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간의 경험을 기술하여 대상자의 실제에 접촉하는 질적연구방법(Parse, 1981)을 적용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이 지닌 실무의 속성과 현상 그리고 경험을 대상자들의 표현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이들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및 지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의 실무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제기한 연구질문은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실무경험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귀납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를 수소문하여 파악한 후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로서, 현장 실무경험이 있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과 구급대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구급대원으로 활동한 경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10년의 활동경험이 있는 간호사 3명, 9년의 경험자 3명, 5년의 경험자 1명이었다.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간호연구를 이수하였고, 질적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학술세미나 참석을 통하여 질적연구와 관련된 개발적 지식을 습득하였다.

3. 자료 수집

1)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먼저, 본 연구자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은 후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실무경험을 이야기 하는 동안 MP3에 면담의 내용이 모두 녹음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가 보장됨은 물론, 연구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과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2)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2007년 12월에서 2008년 7월까지 8

개월 동안 개인별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참여자가 원하는 대로 참여자의 집이나 소방서의 당직실,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였다. 면담횟수는 참여자 1인당 1-2회 정도였으며, 1회 당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자에게 제시한 주요 면담질문은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였다. 이 질문은 비구조적인 개방형 질문으로 직접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자의 선입견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양해를 얻어 면담의 모든 내용은 MP3를 이용해 녹음하였고, 녹음한 내용은 참여자의 말로 그대로 글로 옮겨 적었다. 면담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자는 녹음된 내용과 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비교하였으며,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여러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 중에서 Munhall과 Boyd(1993)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근거로 하였다. Munhall과 Boyd(1993)이 제시한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진술한 유사표현들을 묶은 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표현들을 묶어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 개인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속성을 도출하여 이들의 실무 경험에 대한 의미와 그 본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Munhall과 Boyd(1993)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자료로 옮겨 기록하였다.
-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것을 진술한 단어나 문장을 나열한 후 유사한 표현들을 묶었다.
-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표현에서 관련 없는 것들은 제외시키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표현들을 묶어서 범주화하였다.
-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된 핵심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것을 연구자가 다시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응용성에 근거하여 자료해석 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의 의미 관찰 시 판단중지를 유지하였고, 연구자들 간의 토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시킴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한 표현이 사실적인지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로 부터 얻은 의미 있는 진술 59개가 도출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자부심', '인정받고 싶음', '부족함 인지', '마음의 상처', '적응의 어려움', '불안함', '불확실함'의 7개의 주제모음을 구성하였다. 이 주제모음은 다시 '인정', '위축', '직면'의 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표 1).

범주 1. 인정

- 자부심
 - 선구적 역할

연구 참여자들을 우리나라의 119 구급대에 배치된 첫 간호사로서 이전까지 단순히 환자를 후송만 하던 체계에서 구급대에 필요한 의료품 구비 및 사용, 예산확보, 더 나아가 소방서 내에서 간호사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구급업무 전반의 기틀을 마련하고 확고히 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소방서에 간호사가 들어온 건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 전엔 간호사도 없었지만 의료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었죠", "예전에는 아무나 못 옮기는 환자를 병원에 실어다 나르는 후송역할만 했어요. 서비스지... 근데 우리가 많이 바뀌었지. 구급업무의 틀을 마련했다고나 할까", "초기에 의료소모품을 병원에서 얻어 썼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의료소품 예산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식하지만...", "간호사들이 병원 말고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거죠. 새로운 분야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소방서에 들

어 왔어요.” “이제는 소방서에서 간호사의 영역이 구급차 타는 것에서 종합상황실로 확대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건의하고 업무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 했죠.” “우리가 후송체계 틀을 잡았지...”

- 본보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병원에서 경험한 임상적·의료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 의료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동료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 후 기록하는 방법과 보고하는 형식을 교육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저혈당증 환자를 보면 50% IV line을 잡고 병원에 간다든지... 뭐 그런 임상적 판단이 간호사가 빠른 것 같아요.” “환자 초기 사정도 그렇고, 응급처치도 그렇고 다른 구급대원들에 비해 우리가 좀 빠르죠, 아무래도 임상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가르쳤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간호사들이 하는 것처럼 환자 사정은 어떻게 하고, 응급처치 기록과 일지는 어떻게 작성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전부 다 가르쳤어요. 우리가...”

• 인정받고 싶음

- 부담감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자신의 업무활동 입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후배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조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한 달 근무해 보고 그만 두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들 세계에 여자가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데다가 다음번에도 간호사를 뽑아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만두면 다음에 들어올 사람 앞길을 막는 거다 싶기도 하고.....내가 잘해야지 싶어서.....” “우리 이미지가 나쁘면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 노력함

연구 참여자들은 현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대학 편입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과정을 통한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신의 능력계발을 위한 노력을 하

였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향후 자신들과 후배들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몇 번 빠질 때도 있지만 직장을 그만 두는 한이 있어도 졸업은 한다였어요..”, “배울 만큼 다 배워서 왔는데 일이나 열심히 하지 공부는 무슨 공부냐고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도 배우고... 다른 자격증도 몇 개 따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지역에 함께 있는 소방서 간호사들끼리 그래요. 우리가 한 일들이 후일 소방역사 속에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범주 2. 위축

• 부족함 인지

- 전문성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료적 지식 대부분이 학창 시절에 습득한 오래된 지식으로 최신의료지식과 경향 등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줄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저는 그야말로 십 수 년 전에 학교에서 배운 걸 기초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봐도 되요. 여기는 전문가로서 도움이 될 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없어요...”, “요즘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호사를 위한 교육이 없어요. 있어도 너무 제한적이고...”, “우선적으로 응급구조사들에게 기회가 먼저 가요. 우리는... 그 다음이죠”

- 미숙함

연구 참여자들은 병원에서의 임상경험과 달리 소방서 들어와서 처음 접해보는 응급의료장비가 많아 미숙함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 보는 장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았죠.... ”

• 마음의 상처

- 자존심 상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의료

인이지만 환자 후송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근무 중인 의사나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응급처치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병원 당직의사나 간호사들은 저희들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응급처치기록지? 제대로 보는 의사나 간호사 별로 없어요.”, “환자 데리고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간호사들이 마치 우리가 한 수 아래라는 인상을 강하게 줘요.”, “우리가 해 간 처치를 자기네들이 다시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한마디로 못 믿는다는 거지...”

- 속상함

연구 대상자들은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도 가족을 보살피고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남편과 아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생활이 정리가 되지 않고 어수선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해왔던 일들이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는 자신과 주변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해 하였다.

“비번 날은 집에서 쉬고 싶은 데 어쩌다 시댁 일에 참석 안하면 섭섭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나 싶고 속도 상하고...”, “애는 그냥 지 혼자 크는 거지... 공부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집에 없어서 학원도 시간 때우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라고 말하기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힘에 부쳐서... 날이 갈수록 더 그래요.... 구급차 타는 것도 힘들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또 어쩌나 싶어.....”

범주 3. 직면

- 적응의 어려움
- 업무상의 불만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문화의 성향이 보수적이어서 업무개선을 위한 시도가 어려우며, 행정적 절차가 길고 느리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구급대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24시간 쉼 맞교대해야 하는데다 잦은 대내외적 행사로 인해 휴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이들은 다른 업무부서에 비해 구급업무 이외에도 소방시설물 확인이나 소방로 단속과 같은 소방점검에서부터 불조심 캠페인이나 독거노인 무선페이징 점검 등의 기타업무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양이 많고 그 폭이 넓어 힘들지만 이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이 전혀 없고, 구급업무에 대한 직장 내 이해도가 부족해 힘들어 하였다.

“...업무를 하나 추진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자꾸 이야기 하다가 이제 지쳐서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고... 내가 별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비번에 교육 잡히고, 조회 있다고 잡히고, 봉사 있다고 잡히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면 한 달에 15일은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15일이 항상 night off 인거예요. off 도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야.”, “100건을 출동하든 10건을 출동하든 ... 차이가 없으니까요. 쉽고 편한 부서를 선호하게 되죠. 죽어라 고생만 하고 제대로 인정도 못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다 해요. 업무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 비협조

연구 참여자들은 사고신고 시 신고자의 부적절한 전화대응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대상자의 가족이나 기타 주변 사람들이 구급차의 응급처치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구급에 방해가 될 때, 또는 응급이 아닌 대상자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 등이 환자에게 제공될 충분한 응급의료 제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였다.

“TA 같은 경우에 신고 받으면 의식이 있나 없나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빨리 차부터 보내라고 다그쳐요.”, “환자 사정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빨리 이송하지 뭐하고 있느냐고... 보호자들도 흥분을 해서....”, “구급차 이용하면 돈 주는 줄 알았는데 공짜라 하니까 술 먹고 택시 부르느니 구급차 불러 간다. 이러는 사람도 많았고... 구급차 이용방법을 개선해야 되요.”, “출동할 때, 구급대원이 둘이 가는 데 한 사람은 운전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야... 근데 처치하는 게 혼자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아무래도 응급처치를 충분히 못해주죠”

- 소외감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 구성원의 대다수가 남성들이어서 조직문화의 성향이 남성 중심인데 비해 자신은 소수의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상대가 없고, 업무관련 물품들이 남자 직원 기준으로 제공되어 남성들의 세계에 자신이 끼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감정을 느끼곤 하였다.

“남자들은 그들만의 술자리가 있잖아요. 그 술자리에서 많은 것이 해결되요. 우리는 그 자리에 끼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여직원엔 2명인데, 그나마 저하고는 근무시간이 안 맞으니까.... 속 터놓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엔 옷이건 신발이건 여성용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뭐든 내가 새로 다 해야 해... 다른 직원들 보다 한 단계 더 거쳐야지....”, “처음엔 남자들의 세계에 내가 끼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일들도 별로 없구요.”

- 불편함

연구 참여자들은 대다수의 남자들 속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이 직원들의 눈에 잘 띄고, 쉽게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하였다. 게다가 갑작스런 출동에 대비해 근무하는 24시간을 관내에서만 생활해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눈에 딱 띄잖아요. 이동할 때도 그렇고.... 딱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쉽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조직이구나 싶어요..”,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출동해야 되니까 당직실 밖으로는 잘 안나가요. 나가도 관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 때 당시만 해도 맞벌이 개념도 약해서 어디 여자가 소방서 들어와서 일 하냐는 사람도 있었어요.....”

● 불안함

- 정신적 충격

연구 참여자들은 병원 근무 때와는 달리 사고현장의 최일선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의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는 데다 자신이 직접 응급처치 해야 한다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이들은 처참한 환자를 접하고 왔을 때에는 악몽이나 불면을 겪어야 했으며, 며

칠 씩 환자의 모습이 떠올라 업무를 집중하는 데 힘들어 하였다.

“여중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 잘 때도 좀 무섭고... 일할 때 집중도 잘 안되고...”, “목 맨 사람을 봤는데 가끔씩 생각나요. 그게 힘들어요. 힘든 상황들을 너무 자주 많이 접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는 데 구급차 안에서 우리가 처치해 줄 게 없어서... 결국 죽었는데 자꾸만 나를 보고 왜 그냥 내버려 뒀냐고 원망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교통사고로 목이 잘리거나 자살한 사람을 보거나 하면 참 충격적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감정이 무뎠어요. 혹시 이런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 안전위협

연구 참여자들은 사고나 화재의 현장뿐만 아니라 음주 후 벌어지는 싸움과 끝없이 이어지는 민원 등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제도적, 물리적 보호장치가 없어 대상자보다 자신이 먼저 다칠 수도 있고, 자신이 제공한 응급처치가 법적인 문제나 민원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항상 불안하다고 하였다.

“안 보이니까 전화상으로 반말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남자직원들은 언어맞는 경우도 허다해요...”, “지회들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거예요.”, “목을 조르고 칼을 휘둘러도 일단은 지켜봐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아무런 장비가 없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저희는 가스총을 쏜다든 가 뭐...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 지속적인 긴장

연구 참여자들은 24시간 근무 중에는 관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 정확하게 출동해야한다는 강박감에 출동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출동신호를 놓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항상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딩동댕하는 출동 소리 못들을 까봐 양말도 못 벗고 누워있었던 거예요.”, “숙소 스피커에서 마이크를 켤 때 ‘탁탁’하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랬죠. 잠 잘 때도

그 소리를 놓치면 안 되니까.. 깊이 못자고...”, “당직실 밖으로는 잘 안 나가요. 나라도 관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 불확실함
- 양가감정

연구 참여자들은 외적으로는 자신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지만, 내적으로는 대다수의 남자들과 응급구조사들 사이에서 동료들과의 동질감과 지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끔씩 병원 간호부라는 조직의 울타리가 생각나고 동료들의 승진소식을 접할 경우 병원을 너무 선불리 그만두지 않았는지 아쉬워하였다.

“여기서는 혼자지만 병원은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힘든 삶든 우리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눈치도 안보고, 병원은 요즘 부장됐다가 하루아침에 평간호사로 내려오기도 한다던데..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일할 때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있던 병원에서 받던 월급보다 여기가 나오니까... 기회가 된다면 병원으로 다시 가끔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면...”. “시청이나 일반 행정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보면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러나 싶어요. 편한 자리 놔두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골치 아프게 이겨져서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 의구심

연구 참여자들은 구조업무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료들보다 신체적으로 힘들고 잡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승진의 기회가 적고, 자신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승진사례가 없어 언제까지 구급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언젠가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토로하였다.

“구급업무 파트에서는 진급이 잘 안 되니까 나이 40, 50이 되도 구급차를 타고 다녀야 해요. 퇴직할 때까지.. 계속.. 과연 나에게도 발전이나 희망이라는 게 있을 까 하는 생각을 가끔해요. 그냥 이렇게 차만 타고 다니는 게...”, “퇴직할 때까지 계속 구급차를 타고 다

니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늦기 전에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야 하는 데... 뭘 하면 잘 할까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 그만두고 그걸 하겠는데.. 아직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계속 구급차만 타고 다녀서 다른 일을 모르는데 승진을 한다고 내 말을 부하직원들이 들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계속 구급차르 타야 한다는 결론이데...”, “소방간부들 중에 구급대원 출신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승진도 회박한데다 워선에서 구급업무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지금이나 미래나 바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통합하여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조직 내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임상적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동료들과 후배 간호사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성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족과 최신의료정보 습득의 기회 부족, 처음 보는 구급의료장비 사용의 미숙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환자 후송 시 응급실에서 병원 의료인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받을 때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고, 더불어 가족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체력이 저하되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는 속상해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자신감을 잃게 하여 자신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 속에서의 항상 언행이 조심스럽고 불편하며, 동료나 상사의 구급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부족하고, 충격적인 사고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등 업무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정작 연구 대상자 자신은 안전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긴급출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 병원과는 다른 환경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은 승진이나 업무변화 등의 기회가 적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위해 이직도 고려하고 있었다.

〈표 1〉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의 실무경험

범주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자부심	선구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서에 간호사가 들어온 건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 간호사도 없었지만 의료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었죠.” “예전에는 아무나 못 옮기는 환자를 병원에 실어다 나르는 후송역할만 했어요. 서비스지... 근데 우리가 많이 바뀌었지... 구급업무의 틀을 마련했다고나 할까...” “초기에 의료소모품을 병원에서 얻어 썼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의료소모품 예산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식하지만...” “간호사들이 병원 말고도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새로운 분야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소방서에 들어왔어요.”
	자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제는 소방서에서 간호사의 영역이 구급차 타는 것에서 종합상황실로 확대되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업무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죠.”
인정	본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혈당증 환자를 보면 50%IV line을 잡고 병원에 간다든지.. 뭐 그런 임상적 판단이 간호사가 빠르른 것 같아요.” “환자 초기 사정도 그렇고 응급처치도 그렇고 다른 구급대원들에 비해 우리가 좀 빠르죠. 아무래도 임상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가르쳤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간호사들이 하는 것처럼 환자 사정은 어떻게 하고, 응급처치 기록과 일지는 어떻게 작성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전부 다 가르쳤어요. 우리가.”
	부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에 한 달 근무해보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들 세계에 여자가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다음번에도 간호사를 뽑아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만두면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거다 싶기도 하고... 내가 잘해야지 싶어서..” “우리 이미지가 나쁘면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음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몇 번 빠질 때도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학교 졸업은 한다었어요.” “배울 만큼 다 배워서 왔는데 일이나 열심히 하지 공부는 무슨 공부냐고... 그래도...” “컴퓨터도 배우고, 다른 자격증도 몇 개 따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지역에 함께 있는 소방서 간호사들끼리 그래요. 우리가 한 일 들이 후일 소방역사 속에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전문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그야말로 십 수 년 전에 학교에서 배운 걸 기초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봐도 되요. 여기는 전문가로서 도움이 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없어요.” “요즘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호사를 위한 교육이 너무 없어요. 있어도 너무 제한적이고...”
위축	미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보는 장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비사용이 익숙하지 않았죠..” “당직의사나 간호사들은 저희들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응급처치 기록지 제대로 보는 의사나 간호사 별로 없어요.”
	자존심 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데리고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간호사들이 마치 우리가 한수 아래라는 인상을 강하게 줘요.” “우리가 해 간 처치를 자기네들이 다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한마디로 못 믿는다는 거지”
마음의 상처	속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번 날은 집에서 쉬고 싶은 데 어쩌다 시택 일에 참석 안하면 섭섭해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생하나 싶고 속도 상하고..” “애는 그냥 지 혼자 크는 거지.. 공부를 빠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집에 없어서 학원도 시간 때 우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라고 말하기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힘에 부쳐서... 날이 갈수록 더 그래요. 구급차 타는 것도 힘들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또 어쩌나 싶기도 하고...”
	업무상의 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를 하나 추진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그래서 이젠 건의고 뭐고 잘 안 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고... 내가 별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비번에 교육 잡히고, 조회 있다고 잡히고, 봉사 있다고 잡히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면 한 달에 15일은 쉰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15일이 항상 night off 인 거예요. 그 off도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야.”
직면	적응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건을 출동하든 10건을 출동하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고 편한 부서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죽어라 고생만 하고 제대로 인정도 못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다 해요. 업무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TA 같은 경우 신고 들어오면 의식이 있나 없나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빨리 차부터 보내라고 다 그쳐요.”
	비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사정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빨리 이송이나 하지 뭐하고 있느냐고... 보호자들도 흥분을 해서...” “구급차 이용하면 돈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공짜니까 술 먹고 택시 부르느니 구급차 불러서 간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구급차 이용방법을 개선해야 되요.”

〈표 1〉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의 실무경험(계속)

범주	주제	의미 있는 진술
적응의 어려움	비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동할 때 구급대원이 둘 가는 데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나야... 근데 처치하는 게 혼자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아무래도 응급처치를 충분히 못해줘요” “남자들은 그들만의 술자리가 있잖아요. 그 술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끼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여직원은 딱 2명인데 그나마 저하고는 근무시간이 안 맞으니까 속 터놓고 이야기 하고 수다 떨 사람이 없어요.”
	소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당시엔 옷이건 신발이건 여성용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뭐든 내가 새로 다 해야 해..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른 거지...” “처음엔 남자들의 세계에 내가 끼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일들도 별로 없어요.”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들이 여자니까 눈에 딱 띄잖아요. 이동할 때도 그렇고.. 딱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쉽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조직이구나 싶어요.”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출동해야 되니까 당직실 밖으로는 잘 안 나가요. 나가도 관내를 크게 벗어 나지 못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맞벌이 개념이 약해서 어디 여자가 소방서 들어와서 일하냐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중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게 계속 생각나요. 잠 잘 때도 좀 무섭고... 일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요.”
	정신적 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 맨 사람을 봤는데 시간이 한 참 흐른 뒤에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험한 상황을 너무 자주 많이 접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는 데 구급차 안에서 우리가 처치해 줄 게 없어서 결국 죽었는데 차구만 나를 보고 왜 그냥 내버려 뒀냐고 원망하는 것 같아서...” “처음엔 교통사고로 목이 찢리거나 자살한 사람을 보거나 하면 참 충격적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감정이 무뎌져요.. 혹시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직면	불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하면서 안보이니까 전화상으로 반말하고 막말하고.. 욕도 하구요... 남자직원들은 언어맞는 경우도 허다해요”
	안전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희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거예요. 목을 조르고 칼을 휘둘러도 일단은 지켜봐야 해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아무런 장비가 없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저희는 가스총을 쏘는다는 거 뭐 그런 게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지속적인 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딩동댕 하는 출동 소리를 못들을 까봐 양말도 못 벗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숙소 스피커에서 마이크를 켤 때 ‘탁탁’ 하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 깜짝 놀래죠. 잠 잘 때도 그 소리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언제 출동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해 있어요. 잠도 깊게 못자고...” “콜 하면 바로 출동해야 하니까 밤에도 항상 긴장을 하면서 대기해야 해요.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병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불확실함	양가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기서는 혼자지만 병원은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밋든 싫든 내 편이라고 있지... 그래도 여기는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에요. 눈치도 안보고.. 병원은 요즘 부장됐다가 하루아침에 평간호사로 내려 오기도 한다던데... 모르겠어요. 어디가 더 나은지...” “병원에서는 일할 땐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던 병원에서 받던 월급보다 여기가 나오니까... 기회가 된다면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따지면...” “시청이나 일반 행정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보면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러나 싶어요. 편한 자리 놔두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골치 아프게 이거저거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의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급업무 파트는 진급이 잘 안되니까 나이 사오십이 되어도 구급차를 타고 다녀야 해요. 퇴직할 때까지 계속... 과연 나에게도 발전이나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냥 이렇게 차만 타고 다니는데...” “퇴직할 때까지 계속 구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늦기 전에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뭘 하면 잘 할까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며 여기 그만두고 그걸 하겠는데... 아직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계속 구급차만 타고 다녀서 다른 일을 모르는데 승진한다고 내말을 부하직원들이 들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계속 구급차를 타야 한다는 결론인데...” “소방간부들 중에 구급대원 출신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승진도 희망한데다 워선에서 구급업무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지금이나 미래나 바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IV. 논 의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시작은 1979년부터이지만 전문의료인이 배치되어 응급의료서비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지난 후인 1991년부터이며, 2007년 현재는 163명의 정규 간호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9). 본 연구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지역사회 의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며 전문의료인으로서 업무적 기틀을 마련하고 개선하며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능력의 한계를 인지하며 내면에 상처 또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능력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조직 내에서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으로 환자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였다. 무엇보다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응급의료체계 이용과 관련한 대국민적 홍보와 구급차 사용의 유료화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환자 이송 과정에서 교통사고, 상해, 법률적 분쟁으로 신체적, 정신적,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직업의 종사자들보다 사망률과 치명적 사고율 및 사고에 의한 상해률이 높은 편으로(Sterud et al., 2006) 구급대원들의 26.7%가 환자 이송 시 환자들로부터 음주와 폭언을 경험하고, 59.4%가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한(최덕기, 2003)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보호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등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재문 등, 2002). 특히 구급활동 후 대상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대상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응급처치의 적절성 문제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의 41.1%가 환자의 상태 악화 시 법적 책임을 지우는(김명룡, 2003)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119 구급대에 전문응급처치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의료분쟁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어 이들의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잦은 구급출동과 출동에 대비한 지속적인 긴장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과도한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이 높았으며(Sterud et al., 2006), 특히 근무시간 내내 긴장한 상태에서 출동대기하고 업무이외의 잡다한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높은 스트레스 경험하였다(이강오와 정지연, 2002).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구급활동 과정에서 목격한 끔찍한 상황들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구급대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일종으로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오진환과 이인수, 2007; Jonsson et al., 2003). 이러한 결과는 오진환과 이인수(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며 재충전 추구형으로 이완요법 중재 등을 통한 재충전 기회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구급대원은 24시간 근무제인데 이러한 긴 시간의 근무형태는 응급상황발생에 대한 대기시간으로 장기간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무형태를 3교대 근무로 변환하는 것은 장기간 경험하는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또한 구급대원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상담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는 구급대원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동료 및 상사의 지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통로마련 역시 효과적인 정서적 지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승진기회가 부족하고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현재 10년 정도 근무한 대상자의 경우에서도 승진이나 업무의 변화를 경험한 대상자가 없었고 대부분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나 비전이 없다고 인지하였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구급대원으로 역할하는 간호사들의 직무만족과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직무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이나 업무보완 등

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9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실무경험을 이해하고, 의미와 본질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에게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및 지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17개의 주제를 발견하고, 7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정”, “위축”, “직면”의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이 되어 활동하며, 구급업무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 속에서 의료인으로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자신들에 대한 업무평가가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어 업무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료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관련 장비와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전문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자신을 의료인으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가족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위축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적응의 어려움과 불안함, 불확실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들에게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검증이 이루어져야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고재문, 김태민, 김효식, 이영아 (2002). 제주도 119 구조·구급대의 활성화 및 전문화 방안. 한국응급 의학학회논문집, 6(6), 153-168.

김명룡, 조수형, 조남수, 김성중 (2004). 119 구급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도, 만족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대한응급의학회지, 14(2), 353-359.

김영임, 정혜선, 이창현, 김금숙, 박정영 (2000). 119 구급대의 간호사 배치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실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 411-422.

김용진 (2006). 소방공무원과 직업성 스트레스 고찰.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대구.

박경효 (2002).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15(3), 63-79.

법제처 (2009). 소방공무원임용령. Retrieved May, 21, 2009, from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9E%84%EC%9A%A9%EB%A0%B9#liBgcolor4>

소방방재청 (2009). 2009년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 Retrieved July, 03, 2009, from http://www.nema.go.kr/nema_cms_iba/show_nema/board/board9s/view.jsp

오진환, 이인수 (2007). 구급대원의 소진 경험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정신간호학회지, 16(1), 23-31.

이강오, 정지연 (2002). 응급구조사의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2), 182-191.

정유나 (2007). 소방대원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 관련 연구[Cornell Medical Index: CMI] 건강조사표 중심으로. 아주대학교보건대학원, 수원.

최덕기 (2003). 응급의료 이송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집, 17(4), 42-56.

최덕기 (2004). 119구급대원의 응급의료 이송체계에 관한 인식도 연구(서울, 부산 및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응급의학회지, 15(2), 57-63.

Bennett, P., Williams, Y., Page, N., Hood, K., & Woollard, M. (2004). Levels of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UK emergency ambulance workers. *Emerg Med J*, 21, 235-236.

Jonsson, A., Segesten, K., & Mattsson, B. (2003). Post-traumatic stress among Swedish ambulance personnel. *Emerg Med J*, 20, 79-84.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Munhall, P. L., & Boyd, C. O. (1993).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

(2nd ed.).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New York.

Parse, R. R. (1981). *Man-living-health: A theory of nursing*. NY: Wiley.

Sterud, T., Ekeberg, Ø., & Hem, E. (2006). Health status in the ambulance services: a systematic review. Retrieved October 22, 2010, from <http://www.biomedcentral.com/1472-6963/6/82.pdf>.

Van der Ploeg, E., & Kleber, R. J. (2003). Acute and chronic job stressors among ambulance personnel: predictors of health symptoms. *Occup Environ Med*, 60(Suppl), i40-i46.

- Abstract -

Work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as 119 Paramedics

Jung, Hee Young · Lee, Haej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ork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as 119 paramedic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develop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the nurse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07 to July, 2008 and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provided by Munhall and Boyd.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7 nurses currently working as 119 paramedics and who were willing to fully express their experiences. The grand mal question used in this study was "How is your work experience as an 119 paramedic?"

Result: Narratives of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and divided into 3 categories such as 'recognizing', 'withdrawal', and 'confrontation'.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even if the participants think of their tasks fulfilling and be proud, they have some difficulties due to restrictions of tasks and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ir task abilities, establishing safety policy and compensatory reward system according to their accomplishments, and providing counseling opportunities for their traumatic experiences with difficult emotion.

Key words : Paramedic, Phenomenology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